



## 한국BMS제약, 2015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 ‘패밀리 데이,’ ‘가족친화 지원금’ 등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제공
-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도 일과 삶에 대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환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서울, 2015년 12월 15일) –한국BMS제약(사장 박혜선)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5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등에 있어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업 및 기관에 부여된다.

올해 처음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한 한국BMS제약은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실제 한국BMS제약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셋째 주 금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 전 직원들이 오후 3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매년 5월 가족의 달에는 임직원들에게 ‘가족친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출산 후 3개월간 급여 100%를 지원하는 ‘유급 출산 휴가제’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임신/출산 여직원의 편의를 위한 ‘월 1회 특별 휴가’, ‘수유실 운영’, ‘제왕절개 수술비 전액 지원’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 유동제’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자녀의 학비를 일정금액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 지원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 BMS 제약 박혜선 사장은 “이번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은 일과 삶의 균형이 더 높은 생산성과 업무 성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BMS 제약은 임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도 일과 삶에 대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환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역시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올해에만 ▶‘강원도아동복지센터 소속 아동들과 함께하는 봄소풍 행사’ ▶‘국내 유기아동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한 사내 이벤트’ ▶‘국립재활원 소속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가을나들이’ ▶‘중랑구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김장 담그기’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한국 BMS 제약은 환자를 향한 BMS의 협신을 강조하는 글로벌 캠페인 ‘Working Together for Patients’(환자를 위해 함께 일하는 BMS)를 최근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회사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 환자가 있음을 상기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 #

### **한국 BMS제약**

한국BMS제약은 세계적인 스페셜티 케어 전문 바이오 제약회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ristol-Myers Squibb)의 한국 자회사로, “혁신적인 의약품을 연구개발, 공급해 환자들이 중증질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미션 아래, 암, 바이러스성 간질환, 심혈관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 중증질환에 대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바이오 의약품 연구 및 개발에 전념하는 R&D 중심의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이다([www.bmsk.co.kr](http://www.bmsk.co.kr)).